

하이원리조트 운영정, 한옥 베이커리 카페 새 단장

하이원리조트는 전통 한식당으로 운영했던 운영정을 한옥 베이커리 카페로 새 단장해 오픈했다. 운영정은 한식 디저트 세트인 '달보드레'를 비롯해 바리스타가 로스팅한 커피와 애프터눈 티 세트 등을 판매한다. 운영정의 특별함을 살린 굿즈 판매, 레트로 콘셉트의 오브제와 의상을 갖춘 포토존도 운영한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16일까지 10% 할인과 5만 원 이상 이용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세계 리더들의 신년 메시지

최태원 “도전” 허태수 “확장” 권오갑 “혁신”

(SK)

(GS)

(현대중공업)

주요 세계 리더들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도전, 혁신, 변화, 확장 등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보다 진취적인 마음가짐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세계 리더들이 2022년 새해를 맞아 도전, 혁신, 변화, 확장 등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진취적인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준 효성그룹 회장(왼쪽부터).

최태원 회장 “변화에 유연하게”
허태수 회장 “사업 생태계 확장”
권오갑 회장 “친환경 분야 투자”
박정원 회장 “신사업 주력·선도”
조원준 회장 “속도·효율성 중요”

또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년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보니 기업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닿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행복의 가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고 했다.

신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 혁신, 변화, 민첩한 조직 강조

2022년 그룹 창사 50주년을 맞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권오갑 회장은 혁신 키워드로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을 꼽았다. 권 회장은 “지나온 50년이 도전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을 시작하는 지금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함께 에너지 환경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산업의 패러다임도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ESG 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구조의 혁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기술의 최적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업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62년생 호랑이띠인 박정원 두산그

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제 한층 단단해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전업을 갖겠다”며 올해 주요 실행목표로 신사업군의 본격적 성장, 수소산업 선도, 혁신적 기술과 제품 개발, 기존 사업의 경쟁우위를 통한 시장 선도 등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자”며 “더 큰 도약을 향해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조원준 효성그룹 회장은 “변혁의 시기에 회사가 생존하고 성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도와 효율성에 기반한 민첩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랑이는 먹잇감을 얻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신중을 기하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기민하고 용맹하게 달려들어 사냥감을 취한다”며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노래처럼 ‘새 날 같은 발톱을 세운’ 호랑이와 같이 민첩한 조직으로 효성의 미래를 열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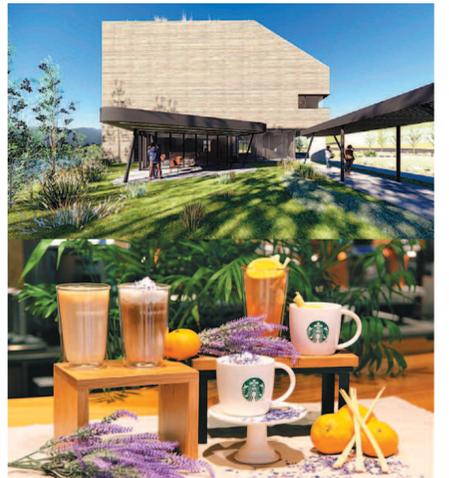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기업의 속명은 챔피언 아닌 도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룹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인사에서 “기업의 속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이라며 “새해에도 위대한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새로운 시간의 프린터’가 되자”고 주문했다. 이어 “당분간 코로나19 국면이 지속되겠지만 새해에는 지난 2년과는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낯선 변화에 적응해 축적한 에너지가 새해에 더 큰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의 주요 사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발전을 이렇게 위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과거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등 약 60여 건에 이르는 전략적 투자 활동을 벌이며 바이오, 뉴에너지, 콰터머스 등 디지털과 친환경이 집결된 신사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생태계 구축이 새해에도 더욱 구체화돼 궁극적으로 GS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 조감도(위 사진)와 2022년 뉴이어 음료. 사진제공 스타벅스

스타벅스, 새로운 메뉴와 매장으로 무장 뉴이어 음료 3종 공개...뷰 맛집 ‘더북한강R점’ 오픈

스타벅스가 2022년 새해를 맞아 새 메뉴와 매장으로 고객몰이에 나선다.

먼저 뉴이어 음료 3종을 선보였다. 대표 상품인 ‘라벤더 베이지 오트 라떼’는 대체 우유인 오트 밀크의 고소함과 라벤더 시럽의 향긋한 풍미가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제공한다. 또 ‘뉴이어 시트러스 티’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레몬그라스, 감귤 풍미의 과일(오렌지·홍자몽·귤·한라봉), 유스베리 티가 어우러져 차분함을 선사한다. ‘둘레 블랙 밀크티’는 진한 홍차에 부드러운 우유와 연유 시럽을 첨가해 향긋하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7일에는 경기 남양주시에 ‘더북한강R점’을 오픈한다. 야외 옥상을 포함해 총 4층, 300여석 규모다. 주변 북한강 풍경과 어울리는 건축물로 설계했다. 내부에 북한강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형 창을 마련해 자연 경관을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처럼 느끼도록 했다. 야외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 파크 공간을 조성했다.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는 “향후 기존 도심 속 매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화 요소를 반영해 지역 사회 및 주변 환경과 함께 어울리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매장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제약바이오업계 “올해도 M&A로 비즈니스 모델 확대”

씨젠·셀바시온 등 M&A 활발히 검토한미, JP모건 컨퍼런스서 계획 발표
신약·기술 보유 기업 인수로 시너지 ↑



국내 한 제약사의 연구실 모습.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술수출에서 M&A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면서 좋은 신약후보물질과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해 시너지를 내는 M&A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스

제약바이오업계가 올해도 활발한 M&A(기업매수·합병)와 지분투자에 나선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주목받는 기업은 분자진단 기업 씨젠이다. 씨젠은 현재 유관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M&A를 검토 중이다.

바이오기업 셀바시온도 의료가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제약사를 인수하기 위해 나섰다. 자회사 셀바시온USA가 개발한 ‘코빅실-V’의 국내 생산까지 확보와 한국 아시아 지역 유통을 전담하기 위해서다.

체외진단 전문기업 SD바이오센서는 1조7000억 원 대의 풍부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활발한 M&A를 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한미약품 등도 업계에서 M&A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AI) 등에 향

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투자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올해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투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이나 한미약품 모두 구체적인 M&A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업계는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흐름이 기술수출에서 M&A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좋은 신약후보물질과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해 시너지를 내는 M&A가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는 활발

한 M&A를 진행했다. 8월 GS그룹 컨소시엄은 보툴리눔 독소 회사 휴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1조7000억 원에 체결했다. CJ제일제당은 7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기업 천랩을 약 983억 원에 지분(44%) 인수해 올해 회사이름을 CJ바이오사원으로 바꾼다. SK팜테코도 지난해 2월 프랑스 세포유전자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이포스케시를 인수했고, 미국 유전자세포 치료제 CDMO 기업 CBM에도 투자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에이치엘비그룹은 지난 연말 200여 개 제약바이오 기업의 CRO(임상시험수탁기관)를 담당하는 노터스를 인수했다.

김재복 기자 oldfield@donga.com



소노인터내셔널, 새해 케이블카 할인 이벤트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과 호랑이띠 고객을 대상으로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사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2월 28일까지 운영하며 수능 응시생은 수험표, 호랑이띠 고객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요금 30% 할인을 제공한다. 본인 이외에 동반고객 3인까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조조할인도 실시한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회 차 탑승 고객에게 30% 할인을 제공한다.

NS홈쇼핑, 16일까지 ‘호랑이해 행운추첨’

NS홈쇼핑이 16일까지 ‘호랑이해 행운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NS홈쇼핑 모바일 앱 ‘호랑이해 행운추첨’ 이벤트 페이지에서 ‘꽝없는 랜덤쿠폰’과 ‘꽝없는 랜덤저렴금’ 응모버튼을 누르면 된다. 아이디어당 매일 1회 응모 가능하며, TV방송과 T커머스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50% 할인쿠폰과 22만 원 저렴금을 준다. 회사 측은 “2022년 새해를 맞아 행운 당첨의 주인공이 돼, NS홈쇼핑과 기본 좋은 한해를 함께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코뼈골절, 골든타임에 신속히 치료해야 2주 지나면 뼈 고착화...일주일 이내 정밀진단 필요

코는 얇은 뼈와 연골로 이루어졌고 돌출된 신체부위라 부상 위험성이 높고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코뼈골절은 코의 모양과 코 안의 구조에 변형이 일어나 비중격만곡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코뼈가 골절될 경우에 골든타임에 치료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태를 방치해 2주가 지나면 뼈가 고착화돼 심각한 기능적 문제를 야기한다. 코뼈골절 환자는 가급적 사고 직후 일주일 이내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코뼈골절 치료는 3D-CT 등 정밀검사를 통해 골절 위치와 방향을 파악한 뒤 부러진 코뼈를 맞추는 수술 등으로 비중격, 환골 등 코막힘 원인을 해결한다. 최신 검진 장비와 수술시스템의 병행에서는 당일수술 및 퇴원도 가능하다. 수술의 핵심은 코뼈를 복원하면서 환골과 비중격을 교정해 기능적 문제까지 함께 치료하는 것이다.

코뼈가 골절된 위치와 상태, 동반된 코 질환 여부에 따라 개인별 수술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수술 후에는 코뼈가 완전히 붙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무리한 운동이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코를 세게 풀거나 자주 만지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회복기간 중 염증을 유발하는 음주나 흡연은 금해야 한다.

강남역 연세코엔비이비인후과 최윤석 원장